

# 사진 속으로 빨아들이는 강렬한 소품

## 책이 있는 사진

이영준

사진평론가 · 미국 뱅햄턴대 미술사 박사과정

책이 사진의 주제로 등장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회화에 책이 나오는 것으로는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책은 지식과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에 비교하면 사진 속에서 책이란 그런 상징정보보다는 소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 같다. 그러나 소품에 지나지 않는 책이 사진 속에서는 묘한 효과를 발휘한다.

### 소품 이상의 역할 갖는 '책'

책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사진가의 눈을 이끄는 것은 대개 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다른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묘사하지 못한 독특한 면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책 속에 빠져 있는 시선이다. 대개의 인물사진 속의 인물 시선은 사진가의 시선, 더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의 시선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등장인물의 시선과 카메라의 시선이 어떤 형태로든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을 사진 속으로 빨아들이는 힘도 바로 이 시선의 교차에서 생긴다.

그러나 사진 속에 책이 등장할 때 이런 관계는 아주 빗나가버린다. 책을 읽는 인물의 시선은 하도 강렬하게 책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인물에게는 안중에도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개 사진 찍히는 인물 모르게 찍은 스냅샷에서 발생한다.

대상인물의 시선과 카메라의 시선이 이렇게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어떤 이미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결국 책을 읽을 때의 시각적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고 진지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렵고 심오한 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진가 마르크 리부가 찍은 중국아이들의 만화책 읽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설사 만화라 할지라도 사람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형태의 저술 못지 않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만화이기 때문에 그 흡인

마르크 리부 <도시의 길거리에서 만화책을 빌려 읽는 아이들> 베이징, 1965.



력이 강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딱딱한 학술서적이거나 모든 존재를 투입하는 듯한 몰입보다는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시선이 작용하지 않을까?

어쨌든 아무리 하찮은 소품으로서의 책이라 할지라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책은 사진을 전혀 다른 시각적 경험의 장으로 이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리부의 사진을 보면 우리는 재미있는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익살과 유머로 묘사

이 사진을 찍은 마르크 리부(Marc Riboud)는 1923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1957년에 중국에 처음 간 이래로 네차례 중국에 갔다. 이 사진은 리부가 1965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찍은 것이다. 1965년은 중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거치고 나서 서방에 대해 막 문호를 열기 시작할 무렵이다.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미술 문학 음악 춤 등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가 사회주의혁명의 선전선동을 위해 쓰이게 되었는데, 사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에 따라 바깥에 알려진 중국은 건강하게 웃는 노동자 농민들, 귀여

운 어린이들, 장중한 만리장성, 돌다리 등 공식적인 모습뿐이었다.

마르크 리부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죽(竹)의 장막'으로 알려진 중국의 이면을 찍고 싶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다양한 문화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위협하고 혼란스러운 해악으로 간주해 온 중국인에게 마르크 리부라고 해서 아무데나 접근하여 아무것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트레이트하게 사진찍기는 했으며, 자기만의 수사(修辭)를 첨가했다. 그 수사란 아이러니와 유머, 패러디 등이다. 그래서인지, 리부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한 수사들을 통해 리부는 중국의 모순과 긴장을 잘 보여준다.

리부에게 중국은 단색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모순과 대비로 가득찬 다채로운 세계였다. 서양인의 눈에는 피외죄한 아이들이 길 거리에 웅기증기 모여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였던 것 같다. 리부가 중국에서 찍은 다른 모든 사진들도 거의 이 정도로, 혹은 더하게 중국을 익살과 유머로 묘사하고 있다. 이 사진이 실린 리부의 사진집 <중국의 모습 Visions of

China>(뉴욕 랜덤하우스, 1981)은 그런 모습들로 가득차 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사회주의 중국의 전진을 암시하듯 손을 들고 서 있는 모택동의 상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택동의 손의 방향과 배경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의 방향이 같아서, 사회주의 혁명이 내세우는 역사의 진보를 비꼬고 있다는 점이다. 기름에 튀긴 만두 같은 것을 먹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은 생산하고 전진하는 진보적인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라기보다는 하루하루 먹어야 살아가는 소시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텔레비전을 지고 가는 도시의 남녀와 돼지를 통째로 메고 가는 시골의 남녀 모습간의 대비, 가정집·이혼법정·댄스홀 등 어디에서나 인민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택동의 초상 등 리부가 본 중국은 모순과 익살이 가득찬 세계이다.

### 혁명의 덕목 거스르는 사진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는 이 사진의 익살과 유머는 공식적인 당의 선전선동 사진에서 나타나는 사진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우리는 혁명기의 중국에서 책이 등장하는 사진이라면 모택동의 교시가

대개 인물사진 속에서 인물의 시선은 카메라 시선과 일치하거나 거부하는 대결을 보인다. 그러나 책이 등장할 때 책 읽는 인물의 시선은 강렬하게 책 속에 파묻혀 있다. 책을 읽을 때의 시각적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강렬하고 진지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담긴 책을 손에 들고 열광하는 인민들의 모습에 익숙해 있다. 그런데 모택동의 교시가 아닌 만화책, 그것도 혁명에 열광하는 인민이 아닌 재미에 탐닉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당이 원하는 사진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재미에의 탐닉이라는 것 자체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혁명의 덕목을 거스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대중과 개인, 역사라는 거대한 관계가 아닌, 책과 개인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재미에 빠져들어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다가올 개방화·서구화·자본주의화의 전조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억측일까.

그러나 리부가 1979, 80년도에 찍은 사진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의 연장선을 긋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님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사진들에는 소비품 광고 선그라스 등의 서양식 복장을 한 젊은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데이트하는 남녀 등 오늘날에는 오히려 상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국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화책 읽는 아이들의 사진은 1965년에 찍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서구화와 개방화라는 전혀 다른 공간 속에 갖다 놓는다. 그런 변화는 이방인인 리부의 눈에만 보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 전체의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진의 독특한 시각이 그런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딱 한 아이를 제외하면 어떤 아이도 카메라를 보고 있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카메라

라의 시선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진의 피사체가 철저하게 객관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즉, 모두가 꼼짝없이 카메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 만화책이라는 강력한 흡인제

그러나 이들이 카메라의 포로가 된 것은 단지 자기가 사진찍힌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리부의 다른 사진에 나타난 중국인들 중 어떤 한 사람도 카메라의 개입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리부가 찍은 만리장성에서는 어떤 중국인이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조차도 리부의 카메라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카메라의 시선에 대응할 준비가 안되어 있고, 따라서 카메라의 시선을 가지고 놀아본 역사적 경험이 없는 중국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마냥 순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대상화된 그들은 리부의 익살, 유머·아이러니·패러디 등 장난의 재료가 될 뿐이다. 더군다나 만화책이라는 강력한 흡인제에 취해 있는 아이들은 카메라의 시선을 되받아치기에는 너무 취약할 뿐이다.

요약하자면, 만화책을 읽는 중국 아이들의 사진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진가 리부의 시선이 죽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중국의 순진한 모습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사진을 르포르타주의 영역에 갖다 놓는다.

또다른 의미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카메라라는 간교한 장치로 무장한 서구의 시선이, 그런 장치를 다뤄본 역사적 경험이 거의 없는 동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사진을 아이러니와 패러디의 영역에 놓는다. 리부에게 아이러니와 패러디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패러디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패러디를 써도 별로 거리낄 것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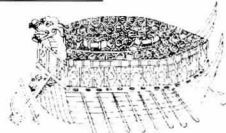
그러므로,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심각한 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습보다도 진지하고 열중해 있는 한, 리부의 장난은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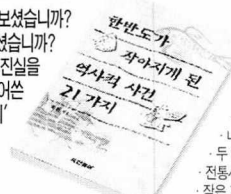
## 작아지게 된

## 역사적 사건

## 리가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판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봐 찬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래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술술 읽으면 썩씩 들어오게  
풀어낸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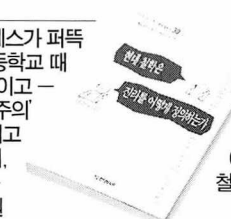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경태 지음 / 6,800원